

지역색 살린 콘텐츠로 나주 골목상권 ‘활력’

중기부 로컬브랜드 창출사업 선정...최대 10억 지원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손잡고 상품·축제 기획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협력해 지역 자원을 브랜드화 하는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에 나주시가 포함됐다. 나주배 등 로컬 자원 등을 활용, 전통과 현대를 관통하는 스토리를 입히고 이를 청년 창업아이템으로 구체화시키는 이번 사업이 지역 소멸을 막고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로컬 크리에이터 주도의 상권 기획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글로벌 상권 창출’ 2개팀과 ‘로컬

브랜드 창출’ 6개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가다. 먼저 ‘글로벌 상권 창출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중심이 돼 골목상권에 집적 공간, 체류공간, 회유공간 등 다양한 공간·콘텐츠를 결합시켜 국내·외 유동인구를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게 골자다. 골목상권 내 앵커스토어를 집중 육성하

고 지역주민, 건물주 등 골목상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자율 상권관리모델까지 이어지도록 지자체와 공동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서울 종로구(대표기업 ㈜어반플레이), 대전 중구(대표기업 ㈜윙) 등 2개팀이 선정됐으며 5년간 최대 155억원을 중기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게 된다.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소상공인과 협력해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 브랜드화하고, 지역 청년의 창업아이템 발굴 및 구체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 나주시(대표기업 나주협동상회)를 비롯해 서울 서초구(대표기업 ㈜무브

컬처), 충남 부여군(대표기업 주식회사 세간), 전북 김제시(대표기업 주식회사 셀레스타), 경북 영덕군(대표기업 ㈜조블레스), 제주 제주시(대표기업 주식회사 일로와) 등 6곳이 이름을 올렸다. 나주시는 지역 문화와 전통이 가진 현대성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에 착수한다. 또 전국 최대 주산지이자 특산품인 배와 같은 로컬 자원을 사람, 스토리, 디자인 등으로 확장하는 로컬 브랜드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예비 소상공인 창업·혁신 프로그램 및 교육·컨설팅, 공동브랜드 및 상품개발 등을, 지자체는 상권연계 축제 기획 및 운영, 로컬인프라 구축 등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상권 및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표기업 및 지역 구성원간 자율적인 확산과 연대를 위한 워크숍 등도 수시로 개최하고, 전문 멘토 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글로벌 상권 및 로컬브랜드 창출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상인·주민·지역과 협력해 골목상권을 넘어 글로벌 도시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방식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라며 “골목상권을 세계인이 찾고 머무는 상권으로 만들어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내수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나주=조한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ECONOMY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광주 2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 491명 1년 전보다 74명 줄어

올해 2월 광주지역에서 태어난 아기가 수가 역대 2월 중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광주 출생아 수는 491명을 기록, 전년 동월(565명)과 견줘 74명 줄었다.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2월 기준 태어난 아기 수가 가장 적었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의 경우 지난 2월 4.6명으로, 1년 전(5.0명) 보다 0.4명 감소했다. 광주의 역대 2월 출생아 수 추이를 보면 1996년까지는 2000명대를 유지하다 이듬해 1900명대로 주저앉았다. 이후 2016년 989명을 기록하며 1000명대가 붕괴됐다. 전남의 경우 올해 2월 676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전년 동월(688명)과 비교해 12명 감소했다. 지난해 2월 4.8명을 기록했던 전남의 조출생률은 1년 뒤 0.1명 늘어난 4.9명이었다.

광주의 사망자는 지난 2월 776명으로 1년 전(792명) 보다 16명 줄었고, 전남은 1682명에서 1573명으로 109명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양 지역 모두 1년 전(광주 448건→519건, 전남 585건→602건) 대비 늘었다. 이혼 건수는 광주는 늘고 전남은 줄었다. 지난해 2월 180건을 기록했던 광주의 이혼 건수는 올해 2월 208건으로 28건 증가했다. 전남은 287건에서 269건으로 18건 감소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박셀바이오 NK세포 증식기술 일본특허 등록...해외진출 순항

항암면역치료제 전문기업 박셀바이오(대표 이재중)는 핵심 면역세포지표기술 중 하나인 ‘배양보조세포를 포함하는 자연살해세포 증식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가 바이오 선진국인 일본에서 공식 등록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허에 담긴 기술은 박셀바이오가 자체 개발한 배양보조세포(Feeder cell)를 활용해 NK세포를 증식시키는 첨단 기술이다. 배양보조세포는 특정 유전자를 발현해 고순도·고세포독성 NK세포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기존의 배양보조세포를 활용한 방법 대비 높은 증폭률과 순도를 보여 NK세포지표기술의 생산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이번 특허는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유럽은 1개국으로 간주)에서 동시 출원됐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 가장 먼저 등록 승인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생명과학과 바이오 분야에서 특허 심사 기준이 높고 선진화돼 있으며, 외국계 바이오 기업에 대해선 특허 엄격한 기술력과 명확한 구성요건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본 특허는 박셀바이오가 올해 국내·외에서 확보한 핵심 기술 특허 중 세 번째다. 이번달에만 CAR-T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모노바디 기반 카메라 항원 수용체’ 특허 및 ‘자연살해세포의 신규한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간암 치료 방법’ 특허를 잇따라 등록하며 여러 파이프라인을 전담대학과 일반대학 출신(농학박사)한 뒤, 광주축산농협 상임이사과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 20일까지다. 향후 2년간 조합의 재정 운영과 조합원 복지, 스마트 축산 도입, 축산물 유통 활성화 등 주요 현안을 이끌게 된다. 이송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 AIX 분야 선도 모델 구축해야”

광주상의, 유회준 카이스트 교수 초청 포럼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유회준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를 초청해 제27차 광주경제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술, AI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AI 반도체 기술의 혁신 속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대응 전략, 지역의 역할에 대한 다각적 조망을 위해 마련됐다. 유회준 교수는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AI 모델(알고리즘), 반도체, 하드웨어와 AI 응용 서비스라는 세계의 축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데 있다”며 “한국은 AI 모델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으나 하드웨어와 AI 응용 서비스 분야는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산업이 다양하고 탄탄하게 구축돼 있어, 더 넓은 기회를 보유하고

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데이터를 클라우드가 아닌 단말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와 메모리 안에서 연산이 이뤄지는 ‘PIM(Processing-In-Memory)’ 기술이 차세대 AI 반도체의 핵심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글로벌 선점 기업이 없는 미래적 시장인 만큼 메모리 강국인 한국이 PIM 반도체 기술과 결합,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라고 주장했다. AI 중심도시 광주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유 교수는 “광주는 AI 기술 융합과 실증을 위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고 있는 지역인 만큼, AIX 분야에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오히려 이 분야가 AI 반도체보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은행은 최근 기존 북항지점을 목포 용해지구 내 연산동으로 이전, 지점 명칭을 용해지점으로 바꾸고 새 출발을 알리는 이천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목포 용해지점 확장 이전

기존 북항지점 변경...지역 밀착 금융서비스 강화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기존 북항지점(목포시 산정동)을 목포 용해지구 내 연산동으로 이전, 지점 명칭을 용해지점으로 바꾸고 새 출발을 알리는 이천식을 가졌다.

용해지점은 목포시의 주요 교통망과 인접해 고객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상업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유동 인구의 금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광주은행은 이번 확장이전을 계기로 지역 밀착형 금융서비스 제공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서 대출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자금과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지금강이엔지, 마른논씨레질 이앙 재배기술 연시회

농번기 일손 분산 등 효과

㈜지금강이엔지(대표이사 김식)는 2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에서 ‘마른논씨레질 이앙 재배기술 연시회’를 개최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농업인과 농업 관계자, 시군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마른논씨레질 재배기술이 소개됐다. 이 기술은 씨레질로 논을 수평을 잡는 과정을 3~4일 레이저 균평으로 대체하고 모내기 10일 전 제초, 7일 전 답수(5일 이상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씨레질을 레이저 균평작업으로 대체해 농번기 일손을 분산하고 최대 58% 농기제 사용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비경·흙탕물·비료·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지금강이엔지, 마른논씨레질 이앙 재배기술 연시회

있고 물 사용량을 절감해 저탄소 ESG농업도 실현도 가능하다. 행사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 재배생리와 이윤호 농업연구사의 벼 마른논씨레질 이앙 재배기술 설명에 이어 ㈜지금강이엔지의 멀티를 고속쟁기(경운·로터리 동시작업기)와 레이저 균평기(흙을 옮기며 땅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기) 시연이 이뤄졌다.

제품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하독스 재질 보습날과 그라운드롤러 장착, 다기능화를 위해 최적의 회전수(RPM) 적용과 충격흡수오토미션장치를 장착하는 등 ㈜지금강이엔지 기술력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김식 지금강이엔지 대표는 “멀티를 고속쟁기를 통해 마른논씨레질 이앙 재배기량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기) 시연이 이뤄졌다. 송대웅 기자 sdw0918@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최근 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와 디자인과 식품산업 분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자인-식품산업 융복합...“지역경제 활성화”

광주디자인진흥원-전남바이오진흥원 협약

광주디자인진흥원과 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가 디자인과 식품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최근 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와 디자인과 식품산업 분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를위해 상호 간 긴밀한 파트너십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산업 제품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협력,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및 마케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와 함께 광주와 전남의 디자인 및 식품산업에 대한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자인-식품산업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은 디자인과 식품산업의 융합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의 디자인 및 마케팅까지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제정 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은 “광주디자인진흥원의 협력을 통해 전남지역 식품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식품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한단계 상승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현장서 발로 뛰는 조합장 되겠다”

광주축산농협 조합장 재선거서 김재필 당선

광주축산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김재필 후보(사진)가 최종 당선됐다. 23일 광주축산농협에 따르면 지난 22일 치러진 조합장 재선거는 전체 조합원 519명 중 469명이 참여해 약 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유효표 468표 중 김재필 후보는 291표를 얻어 조합장에 선출됐다. 김재필 당선인은 “조합원들의 소중한

선택과 성원에 힘입어 제22대 광주축산농협 조합장에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며 “언제나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조합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개혁을 통해 조합원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미래형 광주축산농협”이라는 슬로건으로 조합 발전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직원을 양성 발굴하겠다”며 “특히 축산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맞춤형 지도사업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복지조합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신임 조합장은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동물산업학과를 졸업(농학박사)한 뒤, 광주축산농협 상임이사과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 20일까지다. 향후 2년간 조합의 재정 운영과 조합원 복지, 스마트 축산 도입, 축산물 유통 활성화 등 주요 현안을 이끌게 된다. 이송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